

2018. WINTER. 겨울호(제5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하겠습니다

# 그들 조국의 품으로



#### 발굴성과

2018년 유해발굴사업 성과

#### 인사말

모두의 기대와 열정으로 새로운 희망이 꽃 피길

#### 들어보기

사진으로 보는 2018 유해발굴사업

#### 홍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알립니다

#### 행사

2018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행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

#### 현장의 소리

평화의 땅 DMZ로의 첫걸음

#### 발굴계획

2019년 발굴계획 및 주요 일정

# 숫자로 보는 2018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



2018.12.10. 기준

발굴기간  
**2018. 3.12.-11.23**



발굴지역  
양구, 평창, 영천 등  
**84개 지역**



투입인원  
**33개 사여단**  
연인원 **10만 여명**



'18년 발굴 유품  
인식표 등  
**69,259점**



아군 전사자 발굴실적

구분	'18년	누계
국군	<b>365</b>	<b>10,238</b>
UN군	<b>0</b>	<b>18</b>
<b>합계</b>	<b>365</b>	<b>10,256</b>

'18년 신원확인  
**4위** (누계:131위)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구분	'18년	누계
군부대	<b>1,473</b>	<b>17,829</b>
보건(지)소	<b>759</b>	<b>11,399</b>
이동탐문	<b>1,360</b>	<b>6,645</b>
국유단 (순회, 방문)	<b>483</b>	<b>8,475</b>
<b>합계</b>	<b>4,075</b>	<b>44,348</b>

\* 미수습 전사자의 26.1% (전사자 34,840명 기준 44,348개 확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전사자는  
발굴 국군전사자의 약 **1.3%**



'18년 최초 DMZ 유해수습

구분	발굴 수치
유해	<b>13구</b>
유품	<b>5,453점</b>

유가족 DNA 시료채취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유가족 DNA시료채취  
하지만 유가족 DNA 시료채취는 **44,348**건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26.1%)



## 모두의 기대와 열정으로 새로운 희망이 꽃 피길

올 한해에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 주신 유가족분들, 그리고 유해발굴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8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80여개 지역에서 33개 사·여단 10만여 장병들과 함께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을 찾기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모두의 바람과 간절함이 있었기에 유해발굴 현장에서 400여구 이상의 유해를 찾았고, **故 일병 김재권(강릉), 故 일병 윤경혁(대구), 故 이등중사 김정권(통영), 故 일병 박태홍(양주)님**에게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유해소재 제보에 참여해 주신 참전용사와 지역주민, 직접 발굴에 참여한 야전부대 장병,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보건소 등 행정기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이밖에도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미 공동발굴(1996~2005년)유해중에서 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64위의 유해가 지난 10월 1일 제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 하와이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으로 68년의 시간, 15,000km의 긴 귀환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DMZ 전담 발굴팀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DNA 시료채취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전담 인력을 현행 1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6·25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모두의 기대와 열정이 모여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꽃 피길 기대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 단원들은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남겨진 12만 3천여분의 호국영웅들이 가족의 곁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한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2019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올림

# 사진으로 보는 2018 유해발굴사업



**1.26. 제8차 6·25전사자 유해발굴 관계기관 협의회**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가 국방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3.5. 국방위원회 의원 단 방문**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국유단을 방문해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5.17. 뉴질랜드 유해발굴단 단 방문**  
뉴질랜드 유해발굴단에서 국유단을 방문하여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5.28.~30. 美 북가주지역 참전용사 증언청취, 사업설명회**  
해외에 거주 중인 참전용사를 찾아 6·25전쟁에 대한 기억과 유해 소재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였다.



**3.22. 창원지역 사업설명회**  
창원지역의 6·25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와 증언청취를 진행하였다.



**3.28. 제5차 중국군 유해 송환**  
한·중 관계 우호증진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7년 발굴된 중국군 유해20구를 중국으로 송환하였다.



**6.6. LG트윈스 시구 행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故 김창현 일병의 딸 김인석님이 시구행사를 진행하였다.



**6.21. 국회 유해발굴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4.24.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 단 방문**  
6·25전쟁 참전 미국군 전사, 실종장병 유가족이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여 유해발굴사업을 소개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5.4. 대학생 서포터즈 유해발굴 현장 견학**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학생 서포터즈는 발대식 행사 간 강원도 횡성의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였다.



**6.25. 타임머신 1950행사**  
6·25를 맞이하여 서경덕교수, 안현모·라이머 부부, 일반 국민들이 강원도 홍천의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7.12. 美 DPAA 국장 단 방문**  
미국 DPAA 리닝턴 국장이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7.13. 한·미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 행사**

국유단이 철원에서 발굴한 미군유해 1위와 평안남도에서 발굴한  
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 1위를 상호봉환하는 행사를 가졌다.



**7.26. 전주지역 사업설명회**

전주지역의 6·25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와 증언청취를 진행하였다.



**10.01. 국군의날 유해봉환행사 (서울 성남공항)**

제70주년 국군의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관으로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4위의 호국영웅을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10.19. 주한 외국인 대학생 유해발굴현장 견학**

주한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알리기 위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8.31. 고양시 MOU 체결**

고양현충전사관 개관 및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협력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9.18.~19. 서울·경기 북서부·강릉 지역 사업설명회**

서울·경기 북서부·강릉 지역의 6·25전사자 유가족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10.25. DMZ 유해발굴**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에 따라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4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었다.



**11.06.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단 방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이 단을 방문하여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9.27. 국군 전사자 64위 유해 봉환 (美하와이 DPAA)**

미국이 북한지역에서 발굴한 국군 전사자 64위를 고국으로 수송  
하기 위해 태극기로 관포하고 있다.



**9.28. 국군 전사자 64위 유해 봉환 (美하와이 하캄공군기지)**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차관을 인수단장으로하여 미국이 북한지역  
에서 발굴한 국군 전사자 64위에 대해 인도받았다.



**11.08. 한·미 공동감식**

美 DPAA 버드 박사가 국유단을 방문하여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발굴된 미군 유해에 대한 한·미 공동감식을 진행하였다.



**11.20. 제 9차 6·25전사자 유해발굴 관계기관 협의회**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가 육군회관에서 진행되었다.

# 어디서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알립니다

## 제3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서포터즈



‘유해발굴사업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제3기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이 지난 11월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8개월간의 멋진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는 활동기간 동안 전국 42곳의 기관 및 장소를 방문하여 승고한 호국보훈 사업을 알렸습니다. 유해발굴감식단의 발이 되어준 대학생 서포터즈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유해발굴사업을 알리고 국민과 국유단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 주한 외국인 유학생 6·25전사자 유해발굴현장견학



1 주한 외국인 유학생 현장견학 단체사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주한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6·25전사자 유해발굴현장견학을 진행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 파주 금파리는 1951년 4월, 중공군의 5차 공세 당시 국군 1사단이 적군과 치열한 교전을 한 파평산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행사에 참가한 유학생들은 유해발굴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의 생생한 전투 이야기와 미처 수습되지 못한 국군 전사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 받고, 호국영령을 위한 헌화·묵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한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한국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호국의 영웅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한·미 6·25전사자유해상호봉환행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6년 이후 두 번째 한·미 유해 상호봉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 지역에 남겨졌던 미국 제1기병사단 소속(카투스) 고(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가 미국 하와이를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미군 유해 1구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국영웅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앞으로도 유해발굴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취취회

추석연휴를 앞둔 9월, 6·25참전용사 분들의 증언취취를 위해 국유단이 강원 영동지역을 방문했습니다. 3박 4일동안 참전용사 130여 명의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생생하고, 다양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모든 증언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 및 탐사 활동과 발굴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한·미 6·25전사자유해 상호봉환 행사



2 6·25전사자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취취회

## 국군 전사자유해봉환 행사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64위를 봉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봉환된 64위의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진행한 북·미 공동 발굴 작전에서 발굴된 유해로,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되었습니다.



3 국군 전사자유해봉환 행사

# 68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겨봅니다

평생 잊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그 사람을 원망도 했습니다. 마음에 품고 그리워해야만 했던 남편을, 아버지를 68년 만에 만났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가족 앞에서 유가족은 그리움과 사투한 세월을 토해내듯 연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2018년 하반기 故 김정권 이등중사와 故 박태홍 일병 두 명의 호국영웅이 그리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故 김정권 이등중사와 23살의 나이에 헤어졌던 아내는 89살이 되었고, 전장으로 떠날 당시 세 살배기였던 故 박태홍 일병의 아들은 71살이 되었습니다.

故 김정권 이등중사는 경북 의성군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광복 이듬해에 아내 이명희씨와 결혼했습니다. 오랜 일본유학 생활로 한국어가 서툰 아내를 위해 밤마다 한글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23살의 건장했던 청년은 1950년 피난길에서 국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내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김 이등중사는 임진강-서울 서북방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텔타방어선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시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故김 이등중사의 아들 김형진씨는 2010년 통영시 보건소에서 고모와 함께 DNA시료채취에 참여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세월이 흐

른 후, 김형진씨는 자신의 생일날 아버지의 신원 확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그에게 아버지의 귀환은 선물이자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챙겨주지 못한 아들의 생일을 故 김정권 이등중사는 이렇게 보답했나봅니다. 아내 이명희씨는 63년 만에 만난 남편에게 돌아와 줘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내이며,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말들을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故 박태홍 일병은 전쟁이 발발하자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21살의 나이에 입대하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박 일병은 영천지구 반격전의 영웅으로 활약하다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일병의 유해는 2009년 발견되었지만, 박 일병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까지는 또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유품이나 유가족 DNA 중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일병의 신원은 큰아들 박영식씨가 2017년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면서 확인 되었습니다. 아들 박영식씨는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조금만 더 일찍 참여했다면 10년은 일찍 아버지를 찾았을 텐데'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드러내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고 찾아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호국의 영웅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가족 DNA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은 3만 4천여 명으로, 6·25전쟁 이후 미 수습된 유해 13만 3천 여위 대비 26%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해발굴사업은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도 유가족 분들의 기다림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2019년에는 유가족 DNA 확보 인력을 지금의 4배로 늘려 아직도 산야에 외로이 잠들어 계신 호국영웅과 유가족 여러분의 DNA 확보를 위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① 63년 만에 아내를 만난 故 김정권 이등중사  
② 63년 만에 아들을 만난 故 박태홍 일병



# 평화의 땅 DMZ로의 첫 걸음

DMZ 유해발굴수습팀 상병 김민서

2018년 9월 가을이 한 참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6·25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발굴기록병으로 임무를 수행중이던 나에게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다. 10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DMZ 유해발굴 수습팀으로 합류하는 것이었다. 화살머리고지는 6·25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다.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와 중공군의 전투가 있었고, 국군 전사자 200여명, 미군·프랑스 전사자 100여명, 북한군과 중공군도 다수의 전사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랜 세월 인적이 끊겨 적막했던 DMZ은 어느새 사람들의 북적거림으로 가득 찼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와 도로개설을 위해 5사단과 6공병여단 장병들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간 발견되는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함께 했다.

화살머리고지는 고요한 긴장감속에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60여년 전 아군과 적군이 사용했던 탄과 탄피 등 다양한 유품들이 발견되었다. 하루 빨리 이곳에 잠든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찼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은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다가왔다. DMZ에서 첫 유해가 인식표와 함께 발견된 것이다. 인식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발굴현장에서 유해가 인식표와 같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나 역시 처음 접하는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첫 유해수습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이후에도 완전유해와 부분유해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서 점차 이곳이 격전지였고 수습되지 못한 유해들이 많다는 사실이 실감됐다.

DMZ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니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와 도로개설은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한과 북한의 도로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 남·북이 연결된 도로에는 군사분계선(MDL)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다. ‘군사분계선’이라는 단어가 남쪽으로는 한글과 영어로 쓰였고 북쪽으로는 한글과 중국어로 쓰였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북한 군인들이 도로 공사를 하는 모습과 표지판을 바라보니 묘하고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① ② 국유단 활동사진 ③ 약식제례 ④ 현장감식 결과기록

잊을 수 없었던 두 달간의 DMZ 유해발굴수습이 마무리되면서 나에게 2018년 가을은 ‘비무장지대에서 맞이한 가을’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개인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최초였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DMZ의 가을풍경, 맑은 공기의 순수한 향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DMZ 유해발굴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위한 밑알이 되길 바라며, 쌀쌀해진 계절이 지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목격 또는 들은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제보해주세요!

- 제보전화 : 1577-5625
- 유해 발굴시 포상금 지급 **최대 70만원**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 참여 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 지급
- 직접방문 : 가까운 보건소, 군병원, 예비군 동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보건소, 군병원 방문 채취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
  - 방문채취 : 생업이 바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자택방문
  - 전화신청 : 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 발송(직접채취)
  - 현역장병 :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문화상품권, 위로휴가 제공**)

신원 확인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대한민국 영웅,  
명예 찾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문의전화

**1577-5625** 오! 6·25